

**어린이주일
설교**

약속의 이야기

<누가복음19:8-10>



윤선박 목사 (하카타교회)

2개의 “약속” 이야기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질이나 갚겠나이다” 말씀의 중요한 점은 베푸는 것이나 갚는 것 보다 ‘이웃의 아픔이나 원하는 것’을 향한 마음이 생기는 점에 있습니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것은 성경이 이웃을 생각하는 것으로 생겨난 “약속”에 관심을 두고, 이 “약속”이 태어난 후에 처음으로 이해가 되고 실천을 향해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어린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달리거나 나무에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집으로 초대하거나 해서, 마치 미야자키 하야오(宮崎駿) 작품에 등장하게 될 만큼에 활발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웃 사람한테 착취해 온 눈이 변화되어, 그 눈이 이웃 사람의 아픔을 볼 수 있게 되어 “약속”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변화는 그의 이름 뜻 “순수”에 있을 만큼 예수님의 부름심에 순수하게 기쁨을 표현합니다.

주님은 삭개오의 “약속”을 받아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써 성경이 증거해 온 약속의 역사가 그를 통해 계속되고 있는 것과 예수님 자신이 그에게와 계신 것을 “구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두 입장의 관계에는 시간적 제한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는 도중으로 “오늘”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리고를 향해 가시다가 삭개오를 보시고 이름을 부르시면서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하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한다”고 하시며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맺은 관계가 순간적으로 삭개오에게 구원의 기쁨을 일으키고 이웃을 향한 생각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어진 삭개오의 역할은 이웃을 향한 구원의 표시로서 아직 안보이는 누군가의 치유로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삭개오로부터 나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삭개오의 모습을 봤을 때 저도 같은 마음으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뒤 돌아보면, 어머니와 아버지한테 “선박(善博)”이라는 이름을 받고 그 이름 대로 살아 갈 수 있을 지도 몰랐습니다만, 그러나 大阪、調布、韓国、京都、博多 등 어디에서도 주를 믿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 다. 그 때마다 기쁨을 깨닫고 지금까지 살아 왔습니 다. 잘 걸어 온 길은 아닙니

다만 어렸을 때 부터 조금씩 조금씩 변화된 마음은 삭개오처럼 순간적인 기쁨은 아닙니다만 간증으로 남아서 이웃을 향한 생각으로 “약속”의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인도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주어진 복음은, 신뢰하는 일꾼들을 통하여 지금까지 전해 왔으며 주님을 볼 수 없는 시대에도, 일본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도 약속은 주어져 있다는 사실에 마음을 붙잡는 힘입니다. 구원의 주님을 경험한 삭개오와 같이 ‘구원’에 이여지도록 걸어가는 것입니다.

즉 이 이야기를 두 가지 약속의 이야기로 보면 신앙의 걸음과정에 따라 바라보는 시점이 변화되어 간다는 것이 메시지의 중심입니다. 삭개오가 구원의 주님을 만나 주어의 중심이 변화되어 과거에서 미래로, 아이가 어른으로, 제한된 생명이 초월해 가는 생명으로 나의 시점이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아름다움, 한계를 넘어서려는 힘, 이러한 모든 것을 체험하게 하는 것, 이것은 구원의 주님과와의 만남 외에는 없다고 믿습니다.

나에게만 아니라 ‘우리들’의 걸음은 성경 66권에 기록되지 않지만 항상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웃을 행한 생각이 누군가를 치유하게 되고 계승되어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당연히 나의 걸음 같은 것은 그러한 곳에 아무런 기록으로 남을 일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나의 생명이라도 ‘약속’을 작은 사회에 남기고, 또한 누군가가 이웃을 생각해 가는 ‘약속’을 끌어내려는 입장으로, 그것은 청함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내가 맞이해 가는 구도로 변화해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이주일은 이 복음신문을 읽는 어른이 되어버린 ‘우리들’이 구원의 주님을 따라, 그 눈에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내어 ‘오늘’이라는 순간에 맞아들이는 사역이 있는 주일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희망을 구(求)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희망을 제시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나타낼 수 있기 바랍니다. 더욱이 개교회의 경음은 강한 인도하심이 있기를, 풍성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먼 하카타(博多)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在日コリアン文化の創造と多文化共生社会を目指して、在日本韓国YMCAは皆様と共に歩みます。

YMCA 東京◆ホテル：東京で一番安く便利な宿泊研修施設。フロントは日・韓・英語に対応、24時間営業。10名様～200名様のお会議及び宿泊研修(50名)も可能。
◆スペースYホール：200席の多目的ホール。セミナー・コンサートなどに対応。
◆韓国文化教室(チャンゴ・カヤ gum・舞踊) ◆韓国語講座
◆YMCA東京日本語学校(3ヶ月～2年、短期研修)
関西◆にほんご教室(新規開講・募集中) ◆韓国民俗芸術科(舞踊・チャンゴ)

税込	平日	休日
シングル	¥6,700	¥6,200
ツイン	¥10,500	¥9,800
トリプル	¥13,500	¥12,600
※朝食¥200(宿泊者価格)		

在日本韓国YMCA <http://www.ymcajapan.org/ayc/jp/> *会員及び教職者割引有。詳しくは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東京韓国YMCAアジア青少年センター 〒101-0064 東京都千代田区猿樂町2-5-5 ☎03-3233-0611
関西韓国YMCAアジア青少年センター 〒537-0025 大阪市東成区中道3-14-15 ☎06-6981-0782

관서지방회

제68회 정기총회 개최

신회장에 장경태 목사(東京聖民) 선출

2017년 4월 29일, 재일본한국YMCA에서 관동지방회 제 58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총대원 103명 중 81명이 참석하여 각종 보고, 임원 개선, 헌의안이 승인되었다.

중요한 보고와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선교사 가입식 : 홍용표목사(기독교대한감리회, 北上전도소 부임)
- (2) 전도사 인허식 : 김태인(일본그리스도교회 横浜교회 청빙)
- (3) 헌의안 승인



- 장로 증원 : 동경중앙교회 1명, 요코하마교회 1명, 반석교회 1명, 가와사키교회 1명, 니시아라이교회 1명
- 2017년도 예산안 승인(17,330,764엔)

(4) 신 임원은 다음과 같다.

- 회 장 : 장경태목사(동경성민교회)
- 부 회 장 : 김병철목사(성산그리스도교회) 김영천장로(동경교회)
- 서 기 : 이명충목사(요코하마교회)
- 부 서 기 : 광경환목사(오아시스교회)
- 회 계 : 신대영장로(희망그리스도교회)
- 부 회 계 : 권초혜장로(후나바시교회)
- 전도부장 : 정인화목사(히타치교회)
- 교육부장 : 임태호목사(동경중앙교회)
- 사회부장 : 김신아목사(요코스카교회)
- 선교협력부장 : 오성훈목사(코후우리교회)
- 청년부장 : 김한나목사(오미야교회)
- 여성부장 : 이혜숙목사(사랑의교회)
- 장년부장 : 정유성목사(동경동부교회)
- 고시부장 : 김근식목사(한사랑교회)
- 시찰부장 : 김병철목사(성산그리스도교회)
- 재정부장 : 신대영장로(희망그리스도교회)
- 감 사 : 김일환장로(동경교회), 이성전장로(가와사키교회)



장경태 신회장

중부지방회

제54회 정기총회 개최

신회장에 최화식 목사(長野) 선출

2017년 5월 4일 중부지방회 제54회 정기총회가 토요일(豊橋)교회에서 총대원31명중 24명의 출석으로 개최되어 각종 보고 및 임원개선과 헌의안이 승인되었다.

중요한 보고와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선교사 가입식 : 이진용목사(기독교대한성결교회, 豊田메구미교회 부임)
- (2) 장로 선출 및 증원 승인
나고야교회 2명, 하마마츠교회 1명, 토요일교회 1명
- (3) 2017년도 예산안 승인(5,166,131円)
- (4) 제54회 정기총회 총대 선출은 임직원회에 일임
- (5) 신 임원은 다음과 같다.

- 회 장 : 최화식목사(長野教会)
- 부 회 장 : 정수환목사(豊橋教会) 최광일장로(名古屋教会)
- 서 기 : 고 성목사(岐阜教会)
- 부 서 기 : 최종복목사(千曲비전传道所)
- 회 계 : 이인성장로(名古屋教会)
- 부 회 계 : 이대중장로(名古屋教会)
- 전도부장 : 허광섭목사(岡崎教会)
- 교육부장 : 전병옥목사(名古屋南教会)
- 사회부장 : 정수환목사(豊橋教会)
- 청년부장 : 최종복목사(千曲비전传道所)
- 여성부장 : 송복희권사(名古屋教会)
- 고시부장 : 최화식목사(長野教会)
- 한일선교협력위원장 : 최화식목사(長野教会)
- 전자 미디어 위원장 : 최화식목사(長野教会)
- 감 사 : 김광욱장로(名古屋教会), 최재훈장로(名古屋教会)



최화식 신회장

관서지방회

제68회 정기총회 개최

신회장에 박성균 목사(和歌山第一) 선출

2017년 5월 5일 교토교회에서 관서지방회 제68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총대원 78명 중 73명이 출석하여 각종보고와 임원개선, 헌의안 등이 승인되었다.

중요한 보고 및 결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 (1) 목사안수식: 권영훈 목사(나아와교회 부목사 청빙)
- (2) 헌의안 승인
- 장로증원 : 교토교회 2명, 교토남부교회 2명, 오사카북부교회 2명, 오사카교회 3명
- 2017년도 예산안을 승인함(9,498,258엔)
- (3) 신 임원은 다음과 같다.

- 회 장 : 박성균목사(와카야마제일교회)
- 부 회 장 : 임명기목사(교토교회) 김도영장로(오사카교회)
- 서 기 : 허백기목사(교토남부교회)
- 부 서 기 : 박애선목사(이마후쿠교회)
- 회 계 : 배양일장로(교토교회)
- 부 회 계 : 이창수장로(히라노교회)
- 전도부장 : 김중현목사(나니와교회)
- 교육부장 : 박영자목사(토요나카제일부흥교회)
- 사회부장 : 신용섭목사(오사카KCC간사)
- 여성회장 : 정혜숙집사(히라노교회)
- 고시부장 : 조영철목사(오사카북부교회)
- 선교협력부장 : 임명기목사(교토교회)
- 장년부장 : 윤성택장로(오사카북부교회)
- 감 사 : 모대성장로(오사카북부교회) 모리가츠유키장로(오사카교회)



박성균 신회장



서부지방회

제33회 정기총회 개최 신회장에 한세일 목사(神戸) 선출

2017년 4월 29일, 서부지방회 제33회 정기총회가 코베교회에서 총대원 39명 중 35명이 출석하여 개최되어 각종 보고 및 임원 개선, 헌의안 등이 승인되었다.

중요한 보고 및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선교사 가입식 : 이상덕 목사(기독교대한감리회, 미요시교회 부임예정)
- (2) 헌의안 승인
 - 장로증원 : 코베동부교회 2명
 - 제54회 정기총회 총대 선정은 임직원회에 일임
 - 서부지방회 차기 정기총회는 2018년 4월 30일(월)에 개최하기로 하고 장소는 임직원회에 일임
 - 2017년도 예산안 승인 (12,409,666엔)
- (3) 신 임원은 다음과 같다.

- 회 장 : 한세일 목사(神戸教会)
- 부 회 장 : 이중재 목사(川西教会) 조순원 장로(武庫川教会)
- 서 기 : 나카에 요이치 목사(広島教会)
- 부 서 기 : 한택주 목사(姫路教会)
- 회 계 : 주종중 장로(西宮教会)
- 부 회 계 : 양창희 장로(武庫川教会)
- 전도부장 : 김승희 목사(岡山教会)
- 교육부장 : 김영주 목사(西宮教会)
- 사회부장 : 양영우 목사(武庫川教会)
- 고시부장 : 김승희 목사(岡山教会)
- 신도부장 : 한승철 목사(神戸東部教会)
- 선교협력부장 : 한세일 목사(神戸教会)
- 시찰부장 : 한세일 목사(神戸教会)
- 감 사 : 임영제 장로(武庫川教会), 김해철 장로(神戸教会)



韓世一 新會長



관서지방회

여성교역자와 장로, 여성회와의 좌담회 열어

3월 20일, 관서지방회 여성부 주최의 지방회 소속 여성교역자와 장로와의 좌담회가 있었다. 17명(목사 4명, 전도사 1명, 장로 7명, 여성회 5명)이 참석하여 개최예배를 김필순 목사, 발제를 <여성 교역자/장로의 은사를 살리기 위하여> 라는 테마를 가지고 발제자로서 최춘자 목사, 배경예전도사, 최상숙 장로의 발제를 듣고 질의 응답과 좌담회로 이어졌다.

처음으로 가진 좌담회였지만 서로가 여러가지의 정보를 공유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으며, 여성부로서는 계속해서 개최해 가기로 하였다.

(보고 : 조화자)



서남지방회

제67회 정기총회 개최 신회장에 이혜란 목사(지방회) 선출

2017년 4월 25일, 고쿠라교회에서 서남지방회 제67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총대원 25명 중 21명이 출석해서 각종 보고 및 임원개선과 헌의안 등이 승인되었다.

중요한 보고와 결정사항 등은 아래와 같다.

- (1) 헌의안 승인
 - 장로선출(증원) : 고쿠라교회 1명, 후쿠오카교회 3명, 후쿠오카중앙교회 1명, 오리오교회 1명, 시모노세키교회 1명
 - 제54회 정기총회 총대선출은 임직원회에 일임함.
 - 2017년도 예산안을 승인 (5,573,249엔)
- (2) 신 임원은 다음과 같다.
 - 회 장 : 이혜란 목사(지방회)
 - 부 회 장 : 김인과 목사(후쿠오카교회) 김마리 장로(후쿠오카중앙교회)
 - 서 기 : 천봉조 목사(오리오교회)
 - 회 계 : 김정명 장로(우베교회)
 - 전도부장 : 신치선 목사(벧부교회)
 - 교육부장 : 최영신 목사(우베교회)
 - 사회부장 : 주문홍 목사(고쿠라교회)
 - 청년부장 : 김성효 목사(구마모토교회)
 - 여성부장 : 김인과 목사(후쿠오카교회)
 - 고시부장 : 천봉조 목사(오리오교회)
 - 선교협력부장 : 윤선박 목사(하카타교회)
 - 시찰부장 : 광용길 목사(오키나와교회)
 - 재정부장 : 김정명 장로(우베교회)



李惠蘭 新會長



관서지방회

아슈람 기도 수양회 개최 '기도는 우리의 힘'임을 확신

회제 46회 아슈람 기도수양회가 관서지방회 전도부 주최로 5월 15일(월)~16일(화)까지 동지사비와 코리트리트센터에서 열렸다. 강사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인 권오륜 목사를 모시게 되었다. 권목사는 이틀간 3시간 30분의 강의를 통해 기도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알기 쉽고 설득력이 있게 말씀을 전해 주었다. 말씀을 통해 참가자 모두는 능력 있는 기도의 길을 배우게 되었다. 권목사는 성경 말씀과 한국교회의 역사적인 흐름을 파워포인트로 보여주며 기도와 삶의 실천을 말씀에 근거해서 강조했다. 수양회를 통해 참가자 모두는 기도는 우리의 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개회예배는 새전도부장 김종현 목사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라", 새벽예배는 김종권 목사가 "홀로 남은 밤", 폐회예배는 직전 전도부장 김필순 목사가 "예수님의 기도가 있기에"라는 제목으로 각각 말씀을 전했다. 새벽기도 후에는 1시간동안 조용히 야외에 나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 중간 중간에 허백기 목사가 찬양을 인도했다. 전체적으로 이번 아슈람수양회는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었다. 이번 100명이 참가했으며 참가자 모두는 각각 희망과 확신을 갖고 앞으로 기도생활에 힘쓸것을 다짐했다. (보고: 김필순 목사)

공모죄(共謀罪)에 대한 성명문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와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반도를 떠나 일본땅에 생활의 터전을 마련한 재일 코리안의 자손이자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차별과 편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테러 대책을 구실 삼아 국회에 제출한 공모죄(共謀罪)는, 북한과 IS국가로 부터의 위협에 의한 것이라 선동하며 일본에 사는 모든 재일코리안과 무슬림을 강제로 연관시켜 감시하고 단속하려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상으로 사회 속의 차별과 편견을 부추길 우려가 있습니다. 법무대신이 "일반 시민은 그 대상이 아니다" 라고 거듭 주장한 답변만 하더라도 일반시민의 범주가 어디까지이며, 일반시민이 아닌 것을 누가 어떻게 판단 하겠다는 것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번 일은 국회 안에서 의문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일본에서 살고 있는 외국 국적자가 정말로 일반시민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의문이 됩니다. 이처럼 공모죄는 테러 대책을 구실 삼아 언론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위협하고 일본에 사는 모든 주민간의 심각한 격차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2차 세계대전 중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과 협의죄(協議罪)가 난용 되었던 과거의 사례도 있습니다. 치안유지법은 특정 사상으로 결속한 결사단체나 이와같은 조직에 가입하는 것을 처벌하도록 마련된 협의죄를 통하여 조직, 가입 등의 실행 행위를 단속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941년 7월 26일에 우리 교단 (당시 재일본조선기독교교회)의 교토남부(京都南部)교회와 교토(京都)교회의 목사와 신도들이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체포되었고 이로 인하여 교회를 폐쇄로 몰아간 적이 있습니다. 간신히 남겨진 교회에서도 한국어로 성경을 읽거나 한국어로 찬송가를 부를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이 처럼 치안유지

법은 일본인 뿐만 아니라 재일동포의 독립운동, 노동운동, 사회운동, 그리고 종교활동을 철저히 탄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릇된 역사를 반성하지 않고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치안유지법, 협의법의 명칭만 변경하여 다시금 제도화를 통하여, 앞서 비밀 보호법이나 보안관련법과 같은 세론의 반대를 무시하고 공모죄(共謀罪)를 체결하려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라 말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공모죄를 통하여 형법범(刑法犯)을 포함한 600여 가지 범죄 사례를 적용하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절차상의 완화가 필요하게 됩니다. 형사면책, 잠입수사, 통신방조, 등이 이것에 해당되며 그렇게 되면 범죄수사라는 명목으로 수 많은 시민을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공모죄가 가결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일본이 야경(夜警)국가로 변질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에 규정 되어있는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때로는 누구나도 국가와 사회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러한 목소리는 억압받아 탄압받는 사람들의 탄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위정자들은 이러한 탄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에 따르는 원인을 제거하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탄식의 목소리를 단속하고 억압하려 하는 공모죄(共謀罪)를 저희들은 단언코 반대합니다.

2017년 5월19일

재일대한기독교회 사회위원회

公告 2017年度 牧師・伝道師考試及び宣教師加入考試

在日大韓基督教會の「2017年度 牧師・伝道師考試及び宣教師加入考試」を以下のように実施します。神學考試委員會細則 (<http://kccj.jp/archives/959>) 及び宣教師加入考試請願書 (<http://kccj.jp/archives/148>) をもご参照ください。

- 一. 日 時 : 2017年 9月25日 (月)
 - ・オリエンテーション : 9 : 00
 - ・筆記試験 : 9 : 30~17 : 00
 - ・面 接 : 17 : 00~19 : 00
 ※但し、宣教師加入考試に応ずる者は、人事部面接を受けてから考試に臨むことになります。
- 二. 場 所 : 神戸東部教会
〒651-0077 神戸市中央区日暮通6-4-8 Tel 078-241-5253
- 三. 考試科目
 - ・牧師・伝道師考試 : ①旧約聖書 ②新約聖書 ③旧約釈義 ④新約釈義 ⑤組織神學 ⑥教会史 ⑦憲法 (總會憲法・總會規則・裁判規程等) ⑧KCCJ神學 (在日同胞史、KCCJ史・KCCJ宣教師念)
 - ・宣教師加入考試 : ①憲法 (總會憲法・總會規則・裁判規程等) ②面接
- 四. 提出書類 (各正本 2通)
 - ・牧師・伝道師考試 : ①考試請願書 (總會様式) ②地方會長推薦書 (總會様式) ③履歷書 (總會様式) ④神學生研修會參加證明書 (伝道師応募者) ⑤最終学校卒業證明書・卒業予定證明書 ⑥最終学校成績證明書 (伝道師応募者)

- ⑦世帯全員・転出者を含む住民票 (韓国 : 家族關係證明書) ⑧写真 2枚
- ・宣教師加入考試 : ①宣教師加入請願書 ②牧師按手證明書 ③宣教師派遣・推薦狀 ④宣教師後援約定書 (宣教師費等) ⑤日本宣教師志望動機書 ⑥履歷書 (總會様式) ⑦経歴證明書 ⑧總會加入理由書 ⑨最終学校卒業證明書 ⑩最終学校成績證明書 ⑪家族關係證明書 ⑫写真 2枚
- 五. 期 限 : 2017年 8月20日 必着
- 六. 考試料 : 牧師考試 : 2万円
伝道師考試 : 1万円
宣教師加入考試 : 1万円
- ※願書提出時に、總會の口座に送金すること (8月20日必着)
- ※郵便振込口座 : 000130-9-159228 (在日大韓基督教會)
- ※考試料・交通費は、応募者の所属する各教会と各機関で補助して下さい。
- 七. 提出先 : 總會事務局
〒169-0051 東京都新宿区西早稲田2-3-18-55
電話番号 : (03) 3202-5398 FAX : (03) 3202-4977
2017年 5月20日

總會長 金 性 濟
神學考試委員長 金 武 士
書 記 朴 榮 子

《복음신문 7월호 휴간의 알림》

복음신문은 다음 7월호를 휴간하겠습니다.